

철새들의 피난처 순천만, 멸종위기 저어새 번식 첫 확인

기존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순천만 갯벌 무인도에서 번식 첫 발견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재)한국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25년 수행한 '한국의 갯벌 물새류 정밀 번식 모니터링 용역' 과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IUCN 적색목록 VU)인 저어새가 순천만 별량면 일원 무인도에서 처음으로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순천만에 약 30마리의 저어새가 꾸준히 관찰됐으나, 그동안 번식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성과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저어새는 순천시 별량면 무인도에서 번식지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원경과 드론 조사 과정에서 동지 위에 자리한 저어새

의 모습이 직접 촬영됐다. 해당 무인도는 곰솔·참나무·누리장나무 등이 분포하고, 왜가리·중대백로 등 백로류와 민물가마우지가 집단 번식하는 자연성이 높은 섬으로, 저어새가 번식지로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서식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저어새는 1995년 전 세계 개체군이 약 400마리로 보고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국내의 보전 활동이 이어지면서 현재 약 7,000개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번식지 대부분이 서해안 무인도에 집중된 가운데, 남해안에서 번식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단은 "순천만 인근 무인도의 번식 시도는 회복 중인 저어새 개체군이 새



로 번식지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만에서 저어새가 매년 관찰되었지만 번식 여부는 미확인 상태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순천

만 저어새의 주요 기착지이자 번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물새류 번식지 보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흥군 '아르미쌀' 186톤 부산 영도구에 직거래 판매

1998년 동서화합 목적 부산 영도구 새마을회와 자매결연

장흥군은 24일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 영도구에 지역 대표 브랜드쌀인 '아르미쌀' 186톤을 직거래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장흥군과 영도구 새마을회는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교류 차원에서, 27년간 장흥쌀 직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을 통해 영도구민에게 고품질 장흥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장흥군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번 직거래 행사에서 아르미쌀과 찰쌀 총 9,300여 포대(20kg)가 주문되어 약 5억3,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24일 오전 안양면에 위치한 정남진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용경) 통합RPC에서 상차식을 진행하였으며, 25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수변공원에서 '장흥쌀 직거래 판매행사'를 열고 소비자에게 배달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품질 장흥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회는 1998년도에 동서화합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27년간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문화예술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흥군 제공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호남권 수출입 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해 광양항의 신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호남권 기업 상당수가 육상운송비가 더 저렴한 광양항보다 부산항을 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호남권 물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업의 항만 이용 애로사항 파악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용역은 선사-화주 매칭 기반 마

광양시, 호남권 수출입 기업 실태조사 용역 착수

호남권 물류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사-화주 매칭 전략 개발

케이 전략 개발을 핵심 목표로 약 10개월간 추진되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 현황 △광양항 물동량 추세(2015~2024년) △호남권 수출입 동향 및 업종별 특성 △수출입 기업 실태조사 △신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가 광양항 활성화 정책의 기반자료를 제공하고, 중장기 마케

팅 전략과 투자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물류 지표 확보를 통해 광양항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기업의 항만 이용 패턴과 물류비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용역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

해 정책·사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화주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도출된 전략을 향후 광양항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승재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용역은 물동량 정체를 겪는 광양항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이자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4기 영암군청년협의체'의 운영위원을 12/1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협의체는 2019년 출범 이후,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식 소통 참여기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제3기까지 활동을 이어 온 협의체는 ▲청년 소통 및 의견 수렴 ▲청년 문제 개선

영암군, 지역 청년 정책은 청년이 설계한다

12월 14일까지 '제4기 청년협의체' 운영위원 모집

제안 ▲청년단체 협력·교류 ▲청년의날 행사 기획·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49세 영암군 청년이면 누구나 협의체 운영위원을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된 위원 20여 명은 앞으로 2년 동안 △창업·일

자리 △복지·문화 △소통·참여 △농업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청년 정책 발굴,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설계한다'는 원칙 아래, 협의체의 정기회의, 정책연수, 역량강화 교육, 수시 간담회 등을 및

받침한다.

협의체 참여 희망 청년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 방문·이메일(kds003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청년협의체에 대한 안내는 061-470-2553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 12. 1.부터 2026. 1. 31.까지 62일간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영광"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전개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사에서만 접수하며 금융기관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기탁하는 방식으로 영광군 사회복지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모금을 대행한다.

영광군에서 모금된 성금은 전남사회복

영광군, 희망2026나눔캠페인 전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영광"

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광군으로 다시 배분되며,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 어려운 이웃 물품 지원 등 공공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된다.

매년 영광군에 배분된 성금액은 모금액 대비 200% 이상으로 모금액이 많을수

록 더 많은 금액이 영광군에 배분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많은 군민들이 기부로 온기와 기쁨을 나누어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힘든 시

기를 다 같이 힘내서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각계각층의 참여를 부탁했다.

성금 모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복지과(350-5348)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강진군 2025년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워크숍

공직자 25명 대상 1박2일간 주요 정책 교육현장 투어

강진군은 지난 20일, 2025년 임용된 신규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신규 공직자들이 군정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이해하고, 조직과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 교육·팀빌딩·정책 체험·강진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일차에는 군정 주요성과 및 시책 안내, 직장 행동예절 교육, 집단지성 팀빌딩, 공무원노조 소개, 강진 반값여행 정책 홍보, 푸소(FU-SO) 체험 등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반값여행, 인구정책, 직위 후생복지 등 군의 핵심 정책과 더불어 직장 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커뮤니케이션·보고체계·매너 등 실무 중심 내용이 다루어져 신규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튿날에는 새내기 공직자들이 강진의 매력과 지역자원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대표 관광지 탐방이 이어졌다. 참여자들

은 백운동정원과 가우도를 둘러보고, 고려청자박물관과 분홍나루노을전시관을 방문해 강진의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를 깊이 있게 체험했다.

이어 오찬 간담회에서는 선배 공직자들과 마주 앉아 실무 경험과 조직 적응 팁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획홍보과 최정원 주무관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강진의 정책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약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전방지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과 일한만큼 인센티브로 응답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손경철 기자

